

직장탁아소 설치 법규정 '허울'뿐

취업 기혼여성 1백만...탁아시설 확충 절실

취업 기혼여성은 해마다 늘어나 90년말 현재 1백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직장탁아소 설립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87년에 제정돼 시행중인 남녀고용평등법 12조에 "사용자는 근로여성을 위해 탁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문화했을 뿐 직장탁아소를 설치한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뒤따르지 않아 탁아시설 설치에 선연적 의미만 갖고 있어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은행 노동조합 여성부가 지난 2월 조사한 '전국 직장탁아소 현황'에 따르면 현재 직장탁

아소가 설치된 곳은 서울의 (주)협진양행·연세대 의료원·여성개발원·(주)부흥, 안양의 (주)삼풍캐프리지 등 20개이다. 이 가운데 사무직 직장여성을 위한 탁아시설은 여성개발원 한곳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공단내 기업체들이다.

이들 직장탁아소는 직계는 7명(인천 신도실업, 의정부 동양복장산업)부터 많게는 1백10명(연세대의료원)의 어린이를 맡아 돌봐주고 있다.

탁아비 부모부담은 7천원(인천 나이코리아)부터 13만4천원(연세대의료원)까지 다양한데, 회사가 일부 또는 전액부담하거나 부

모가 전액부담하고 있다. 회사가 탁아비를 전액부담하는 곳은 서울과 부산의 (주)협진양행, (주)부흥, 안양 (주)삼풍캐프리지, 인천 (주)홍화비엠텐, 의정부 동양복장산업, 대구 (주)대한방직, 구미 한중전직, 이리 원일섬유 등 9곳이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황계자씨는

서울 등 각 지역 공단내 기업체들이 주부인력 활용방안으로 직장탁아소 설치를 늘리는 추세인 데 반해 사무직여성을 위한 직장탁아소 설립은 부진한 상태다. 이는 사용자쪽의 무성의와 탁아시설 설치에 대한 주위의 편견, 이해부족 등이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대병원 노조, 한국은행 노조 등은 89년부터 직장탁아소 설치를 위한 단체교섭을 벌이기 시작했으나 아직 결실을 이루지 못



취업 기혼여성을 위한 직장탁아소 설치가 절실하나...

회사 부담 9곳불과...세제혜택등 주어져야 사무직 극히 부진...단체교섭 활용 바람직

"해마다 취업 기혼여성이 늘어나면서 직장탁아소 설치에 관심을 갖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탁아소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사용주에게 세제혜택 등의 반대급부를 주어야만 직장탁아소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각 직장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직장탁아소 설립을 따내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의 하나라고 황씨는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오는 94년에 개설하기로 노조와 병원쪽이 합의했고, 탁아비를 은행쪽에서 전액 부담해줄 것을 요청한 한국은행 노조의 경우 은행쪽에서 직장탁아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시중은행보다는 늦게 설치한다는 내부방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최초로 서울 상수국교가 지난 88년 6

월 학교 안에 마련한 '상수방'은 여교사를 위한 직장탁아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보이고 있다.

전체교사의 75%를 차지하는 여교사들이 아이 걱정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의 빈 장고를 탁아소로 꾸며 여교사 22명, 남교사 2명의 자녀 30명을 돌봐주고 있다. 출근과 동시에 아이를 맡긴 뒤 저녁 퇴근때까지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수방은 3살부터 교 6학년 자녀까지 맡아주는 이 특징이다.

이지원 교장은 "교사들이 자녀를 성실하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자녀문제를 우선 해결시켜야 한다'는 생각에서 88 6월 개교와 더불어 상수방을 열었다"고 밝혔다. 시집, 친파출부에 아이를 맡기는 여교사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